

행복도시 이야기

Vol. 226호
1월



행복청 SNS
바로 가기

행복도시의 2026년, 행정수도 도약 원년으로

- 2026년 행복청 업무 로드맵 공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총력
- 행정수도 기능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균형발전 선도 모범도시 더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씬 없이 달려온 행복 도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분기 점에 서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2026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그 대전환의 시점은 바로 올해가 될 전망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청 20년을 맞은 2026년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은 물론, 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의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위한 기틀을 세우다〉핵심공간 조성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가 한 나라의 행정수도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실체, 즉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할 핵심 기관이 들어서야 하며, 둘째는 국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 속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복청은 내년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건축물과 핵심공간 구축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설계 공모를 내년에 본격 실시하고, 국가상징구역의 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시민 공간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능의 물리적 조성과 함께 이를 지지할 법·제도적 기반 형성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행복청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빈틈없이 지원하여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주요 기관 이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수도를 담아낼 그릇을 빛다〉정주여건 확충 및 다양한 자족 기능 강화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과업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그릇, 즉 탄탄한 도시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행복도시는 지난 20여 년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모범도시를 목표로 꾸준히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과 가장 낮은 평균 연령을 가진 젊은 도시, 1인당 녹지·공원 면적 전국 1위의 녹색 도시, 범죄 건수는 제일 적고 삶의 만족도는 전국 1위인 살기 좋은 도시. 이러한 지표들은 행복도시가 그동안 쌓아온 저력을 보여줍니다. 행복도시는 2026년, 이러한 도시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빈틈없이 지지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집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보다 많은 5천여 호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1시간, 전국 주요 도시 2시간' 국가교통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망을 확충합니다. 여기에 국가중추시설 도입 등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을 재개하는 한편, 생활권별 특화 공원을 만들어 친환경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방침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더해줄 다양한 기능도 한층 구체화됩니다. 충남대 의대 개교 및 고려대 착공을 앞둔 공동캠퍼스는 정원 3천여 명 규모의 대학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에는 2023년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도시건축박물관이 내년 준공될 예정이며, 디자인박물관과 문화유산센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5-1생활권(함강동)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선도지구 주택이 착공되고, 향후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스마트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 또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2026년 7월까지 마련

• 대중교통, 도로 인프라, 주차 등 교통 전 분야 개선으로 교통 수요 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 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북측 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 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합니다. 또한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하여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합니다. 본 대책의 핵심 내용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서틀을 운영하여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2025.10~2026.9)을 착수해 수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이러한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상징구역 전경



종합계획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착수

- 1월 12일 사전규격공고 시작으로, 설계공모 본격화, 4월 당선작 선정
- 국격·효율성·국민소통을 제고하는 상징적인 건축물 건립
- 국민참여투표 제도 보완... 국민이 직접 뽑는 세종집무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를 1월 12일(월)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 시설·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안을 제안받게 되며, 추가로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 까지 제안받을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앞으로 2026년 1월 현장 설명회, 2026년 4월 작품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 설계권(12개월, 111억원)이 주어집니다.

작품심사는 1, 2차에 나눠 진행하며,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가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작년에 시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입했던 '국민참여투표' 방식을 보완하여 진행됩니다.

국민참여투표는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자료의 내용과 양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표 1위 작품은 2차 심사 시 최종 결선투표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반영을 보다 강화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입니다.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새로운 박물관 도시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형욱



최근 우리나라 문화계에는 고무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65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박물관 순위 최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신라시대 금관이 국제적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국립경주박물관 역시 한 해 동안 2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박물관이 단순히 과거 유물을 보관하는 정적인 공간을 넘어, 대중 문화와 외교, 그리고 도시브랜드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역동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박물관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케데헌’을 접한 관람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까치호랑이 배지’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고, 박물관의 ‘뮤지엄’과 기념품의 ‘굿즈’의 합성어인 ‘뮷즈’의 인기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국립박물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뮷즈의 연 매출이 4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 박물관이 창출하는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가 실로 막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래 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심장부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간 수도로서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이나 천년 고도 경주에 비하면, 이제 막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의 박물관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주의 박물관이

대중문화와 역사, 도시공간, 그리고 국제 외교 행사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들이듯이, 행복도시 역시 도시 고유의 역동성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문화 플랫폼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에는 이미 대통령기록관과 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해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도시건축 박물관부터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 기록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해 국립박물관단지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2031년 서울 경복궁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까지 완료되면, 이 곳 박물관단지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거대한 문화지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행복도시에는 처음부터 혁신적으로 디자인된 도시로서 그 자체가 국제적인 도시건축과 인프라 모델로 꼽힙니다. 도시 중앙에 원수·전월산과 금강, 예전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생업과 생활의 기반이었던 논(장남평야)을 중심 콘텐츠로 가진 중앙공원과 한국 전통 조경을 모티브로 한 국립수목원은 국립박물관단지와 물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들어서면 국가 상징구역까지 더해지면,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의 외형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도시의 건축과 디자인이 하나의 전시물이 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쌓아온 공적 기록은 국가기록박물관, 대통령기록관 등의 콘텐츠로 연결되며, 중앙공원과 수목원은 그 자체로 지붕 없는 야외 민속박물관이 됩니다. 자연과 역사, 행정과 문화가 맞물린 살아 있는 문화생태계가 이곳에서 현실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자, 미래 대한민국 문화 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국립박물관단지는 이제 하드웨어의 토대를 넘어 소프트웨어의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큰 과제는 부처 간, 시설 간, 자원 간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박물관을 누가 운영하는지 보다는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도적으로 관계 기관 간의 기획과 메시지를 통합하고, 경계 없는 공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 중심의 자족도시로 출발했던 행복도시는 이제 실질적 행정수도, 나아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청은 앞으로 범정부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박물관과 도시 자원을 한데 묶고, '생동하는 박물관 도시'로서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긍지를 배우고,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단지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4,740호 공급

• 2026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에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되며, 공급 예정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주택(4,225호)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호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호

• 임대주택(515호)

집현동(UR1·UR2-1, 공무원임대) 515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도입되고, 다솜동 용호천 인근의 “보행 친화 공동주택 특화권역”은 소규모 블록 계획을 통한 보행 친화형 주거단지로, 중앙부의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 주거단지는 문화 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학교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은 교통이 우수한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실내 공용 휴게공간, 청년 창의커뮤니티시설 등이 함께 계획되는 청년 특화 주거로 집현동에 공급됩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우수한 디자인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특화 주거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정례화 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올해도 지속 운영하며, 공급계획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는 앞으로 6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나아가겠다”며, “세종시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도시 주택 공급과 연계해 도시 전반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조치원을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신도심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들 신안·보통지구 2개소에는 총 약 5,200세대 규모의 임대·분양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1교시

행복이와 한글교시



1 ‘전세방’과 ‘전셋방’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전세방에서 지낸다 ☒

전셋방에서 지낸다

2 ‘풀숲’과 ‘풀췌’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풀췌에 누웠다

풀숲에 누웠다 ☒

사자성어 배워가기

수 주 대 토

(守) (株) (待) (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숙제코너 속담 퀴즈

- 1 입맛 나자 ○○떨어진다
- 2 말 안 하면 ○○도 모른다
- 3 말은 할수록 늘고 ○○은 할수록 준다



12교시 숙제코너 정답 ➡

1번 점심

2번 제사

3번 밥상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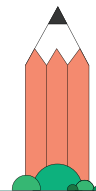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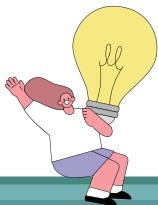
Q 행복청,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을 신설하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공모기간 1.8.~4.15. 18시
1등 최대 1억원
우수 참여자 1만명 3만원

From Idea to Economy
모두의 아이디어

지식재산처

한파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기상 상황 확인하기

야외활동 자제

따뜻한 장소 휴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관 동파예방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복지가 필요한 순간, 복지포털 복지로 *

딱 맞는 순간, 맞는 복지

2024.7 ~ 2026.1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참여자 한 명이 국민
10,000명을 대표합니다.

조사대상
전 국민 대표로 표본 선정된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조사원이 국민 대표를 찾아갑니다.

조사내용
환경노출관련 설문조사
환경오염물질 농도 분석 및 임상검사
건강한 생활습관 안내
"본 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법정조사입니다."

기초에너지환경부
국립원경과학원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